

##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

- 과도한 수술서류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
- 개선 기준을 과거 청구건에 소급 적용하고, 보험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구제를 자율 추진하는 등 선량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
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.

### 1. 추진배경

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,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. 이에,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(수술 필요성) 판단을 위해 진단서 外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, 과도한 보험금 청구 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.

또한,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(25만원 내외)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('22.6월)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件\*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였다. 이에 따라,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증가하였다.

\*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·부작용 발생확률이 낮아 일반적으로 입원 불필요

※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규모(억원, 추정) : ('20) 7,598 → ('21) 11,210 → ('22) 8,505 → ('23.上) 606

위와 같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'22.12월 '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'를 국민제안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으며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보건당국 협의\*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.

\* '23년 공·사보험실무협의체('23.12.15.) 안건으로 논의

## 2.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

우선, 과잉진료·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❶고령자(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) 대상 수술, ❷단초점 렌즈(건강보험 급여항목)를 사용한 수술, ❸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. 이에 따라,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\*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
\*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은 70%, 70대 이상은 90% 수준

이에 더해,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, 합병증·부작용 발생, 他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\*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 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.

\* 예. 기저질환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, 합병증 및 사후조치내역 확인 등을 위한 의무기록지, 他수술 병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술확인서 등  
(단, 경미한 합병증·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)

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상기 지급기준 정비방안은 과거 청구 건('21년 ~ 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)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. 각 보험회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.

## 3. 취약계층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업권 추진사항

한편, 보험업권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(수술일 기준) 이상 고령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\*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.

\* 백내장 과잉진료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既수술건('21년 ~ 정비방안 발표일 이전)에 대해서만 적용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서승리 (02-2100-2962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서영일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황기현 (02-3145-7466)
<공동>	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본부	책임자	본부장	최종윤 (02-2262-6614)
		담당자	부 장	김희경 (02-2262-6658)
<공동>	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	책임자	본부장	신종혁 (02-3702-8550)
		담당자	부 장	이형걸 (02-3702-8531)